

영국의 호스피스 연수기

김민정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부회장

스요일 아침 입원 환자 및 의뢰되어 온 환자에 대한 보고를 주고 받는 회의를 마친 후 가정 방문 간호사인 Gill 과 전립선 암 환자 John 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70세된 독신 남자로서 가끔 조카가 와서 돌보지만 일주일 전부터 부종이 심해져서 주치의가 센터로 의뢰하였다.

Gill은 John에게 다음날 오전 중에 Day Care Center 를 방문할 것을 권유한다. 다음날 차량 봉사자가 John을 Center로 데려오면 consultant (호스피스 전문의)와 상담 후 물리 치료사가 복부 massage 와 압박 붕대로 입과부종에 대한 치료를 한다.

식사 봉사자는 John에게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점심식사를 차려준다. 식사 후 1시간 가량 조용한 음악과 심신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이야기를 듣는 relaxation therapy(이완요법)를 하고 나면 차량 봉사자가 집으로 데려다 준다.

John과 같은 식탁에 앉았던 Sylvia 도 신경섬유종을 앓은지 20년이 되고 여러번의 수술 결과 입과 눈이 일그러지고 내이에도 종양이 침범하여 보고 듣고 말하기가 어렵다. 음식도 삼킬 수 없으므로 배꼽 부위에서 위로 직접 입구를 만들어 (PEG) 유동식을 주입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부터 폐렴과 우울 증세가 있어 Macmillan 간호사에 의해 의뢰되어 입원하였다. 이제 증세가 호전되어 Day Care Center 에 와서 다른 환자들과 전자 쓰기로 의사 전달을 하면서 domino game을 즐기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점심 시간에는 호스피스팀 요원(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목사)이 간단한 점심을 하면서 multidisciplinary meeting을 한다.

환자가 퇴원하여 귀가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약물, syringe driver 사용 유무, 간병인이 필요한지, 집안에 계단이 있으면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방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는지, 자녀들을 돌보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한다.

오후에는 종합 병원 안에서 Macmillan team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Sally와 함께 신경외과에서 의뢰되어 온 환자의 병실을 방문하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의사소통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의 여자 환자도 위관을 통해 음식을 주입하는데 며칠 전부터 구토 증상이 있어 담당 의사가 병원 내 호스피스팀에게 증상완화를 의뢰한 것이다.

Sally는 담당 의사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팀들의 처방을 권고하는데 담당 의사인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또, Sally는 환자의 남편을 만나 증상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이야기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한다.

금요일은 Dr. Crack과 시설에 있는 뇌종양 환자를 방문했다. 이 시설에는 간호사가 2명 있어 매주 방문하는 Dr. Crack과 환자에 대해 의논하면서 잘 돌보고 있다. 환자는 3년 전에 부인과 이혼하고 뇌종양이 발생하여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시설로 들어왔는데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런 의욕도 보이지 않았으나 헤어질 때는 농담을 나눌 정도로 면담은 성공적이었다.

입원환자 Jean은 91년도 유방암을 진단 받고 유방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95년도에 뼈

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한달 전부터 통증이 팔과 가슴 견갑골에 있어 몰핀, 항우울제 등을 썼으나 호전되지 않아 Ketaminer과 Dexamethasone을 경구 투여하였고 만일 호전되지 않으면 ketamine을 마취과에 의뢰하여 경막외로 주사할 예정이었다.

이상의 이야기는 내가 6주 동안 있었던 영국 New Castle Marie Curie Center의 일상이다.

이곳의 총 의료비는 일년에 180만 파운드로 이중 50%는 Marie Curie 재단에서 지원하고 1/3은 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운영해 나간다. 환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곳의 1인당 하루 의료비는 220 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한다.

20개의 입원 병상과 Day Care Center가 있고 3명의 호스피스 전문의와 3명의 수련의, 30명의 간호사가 있고 그 외 물리치료사 2명, 작업 치료사 1명과 목사님이 상주하고 간호사와 의사 중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의료진간의 의사 소통이 자유롭고 친밀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결정 사항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여 여유가 있었다. 안내에서 일하고 있는 Allen이 자랑스러운 듯 불평하는 말로 "영국은 자고 일어나면 법, 마누라, 날씨가 바뀐다"고 했던가.

이곳은 Education Cent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의료진과 봉사자를 위한 program이 일년 내내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다.

영국은 이제 종합 병원이나 가정에서 완화 치료가 잘 되고 있어 센터에 입원하는 환자수가 줄어드는 인상을 받았고 앞으로는 기존 호스피스 Center는

호스피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런 소중하고 용기를 주는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Dr. Doyle 과 가족적인 분위기로 다정했던 Marie Curie 직원들, 숙소를 제공하였던 Cittle Sister of Poor (경노회)수녀회의 존경하는 수녀님들, 연구자료를 주신 우리 호스피스 회장 수녀님과 선생님, 현재 몸담고 있는 요셉의원 원장님, 그리고 여행을 격려해 주었던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